

제 61 강

옥중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

■ 성경본문 빌립보서 1:1-4:23 ■

프렐류드(Prelude)



빌립보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옥에서 쓴 두 번째 편지, 빌립보서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는 로마의 속령이었으며,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을 즐겨 누렸던 도시였습니다.

2차 세계 전도 여행 시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으며(행 16:11-40), 바울이 최초로 개종시킨 사람은 자주 장사인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 이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대다수가 헬라인과 로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극히 적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 바울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엡 4:10-18). 사도행전(행 20:1, 2, 6)은 바울이 그곳을 두 번 방문했던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서신이지만, 빌립보서는 바울의 신앙과 사상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낸 신학적 고백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사랑의 편지라고도 부르고 신앙고백이라고도 합니다.

I. 주요 내용

1. 그리스도의 겸손(빌립보서 2:1-18)
2. 바울의 경주(빌립보서 3:1-21)
3.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빌립보서 4:1-9)

II. 시대적 배경

빌립보 교회는 1. 다소 가난했고(고후 8:1, 21), 2. 박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빌 1:28-30), 3. 여인들로 인하여 불화와 분쟁에 빠져 있었으며(빌 2:1-4), 4. 예수의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주장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3:1-21).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정성 어린 연보를 가져갔으며, 바울을 보살피도록 했으나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면서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위한 바울의 권고와 기도, 감사와 기쁨을 담고 있으며,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따뜻한 편지였습니다.

빌립보서는 주후 55-56년 사이 에베소 감옥에서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대표〉

빌립보서 기록
(주후 51 혹은 62)

III. 말씀과 해석

1. 그리스도의 겸손(빌립보서 2:1-18)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였고, 그다음은 사랑의 일치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여교인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빌 2:2-4)는 말로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그리스도의 마음(빌 2:5)은

(1)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신을 낮추신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빌 2:6).

케노시스-kenosis(그리스어 ‘케누’-kenoo)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전적인 자기의 포기였습니다.

(2)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종의 형체를 취하신데 있었습니다(빌 2:7). 그것은 인간의 육으로 오신 ‘성육신’-incarnation으로 나타났습니다(빌 2:7-8).

(3)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비움은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빌 2:8).

2. 바울의 경주(빌립보서 3:1-21)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의 갈등에서 비롯된 불협화음 외에 두 개의 그릇된 교훈과 이단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할레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빌 3:3). 일명 ‘율법주의자’들로 알려진 이들은 율법을 구원의 필수조건으로 내세우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

울은 자신을 누구보다 더 ‘율법주의자’요, ‘히브리인’임을 자랑하던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빌 3:8)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의 그 무엇이던 의미가 없어졌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다른 하나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고 자랑하는 완성론자들의 침투였습니다(빌 3:15). ‘온전히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이들은’ 더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앙-도덕 무용론자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고백하였습니다(빌 3:12).

이 경주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하나로 집약되었다는 고백입니다(빌 3:13-14). 여기서 바울은 삶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순간마다 살아가는 경주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빌 3:20).

3.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빌립보서 4:1-9)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 서두는 “주안에서 기뻐하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마지막 날의 소망에서 오는 기쁨입니다(빌 4:4-5).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 이 대망과 소망 안에 있는 세상의 권력, 금력, 명예는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은 왔다가 가는 유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게를 두고 화해를 권한다고 했습니다(빌 4:1).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 (2)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 (3)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고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중요한 것은 접속구입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기도와 간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빌 4:7). 이것이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고 신앙입니다.

IV. 성찰과 나눔

1.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따뜻하고 애절한 사랑과 권면을 담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바울 자신이 경험한 회심과 거기서 울려 나오는 삶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2. 비움-성육신-십자가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겹치는 바울의 모든 것인 명예, 족보, 지식, 신앙까지 하나님 앞에서 “배설물”로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3. 그리고 바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이 임하고 있다는 마지막 때의 알림이고,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지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빌 3:20).

4.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1)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따라 ‘겸손히 행하고’,(빌 2장),

(2)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이를 ‘예수께 잡힌바... 부르심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자이며’(빌 3:9-14)

(3)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이며(빌 3:20),

(4)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빌 4:4-7).

5. 그래서 미국 듀크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스탠리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는 그리스도인을 지상에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 했습니다.
“Resident aliens”